

음악이론전공의 자리매김과 그 전망

황 성 호

서울대 작곡과 교수

1. 머리말

음악대학에서 전공으로서의 음악이론이란 원래 단어의 의미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원래 음악이론[樂理]은 화성학, 대위법, 전반화성, 악기론, 관현악법 등 작곡을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지식들을 지칭한다. 그러나 전공으로서의 음악이론이란 순수음악이론의 의미 이외에, 음악을 다양한 학문적 관점으로 다루는 음악학(musicology),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체계 음악학, 역사 음악학 등도 포함하고 있다. 즉, 음악 미학, 음악 심리학, 음악 사회학, 음악 현상학, 음악 인류학, 음악 해석학 등 음악이란 단어만 빼면 각각 음악 외의 개별학문 영역의 것들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포괄적 의미를 지닌 음악이론을 전공과목으로서 다룬다는 것은 어쩐지 모든 것이 전문화, 체계화하는 현재의 학문 추세에 역행하는 것처럼도 생각된다. 외견상 하나의 전공이지만 그것의 대상 범위가 넓고 가지수가 많다는 사실

은 자칫 이론전공을 모호하게 만들 수 있으며, 주변 제 학문의 언저리에만 머무르는 2차 학문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리하여 이는 음악이론과 음악학 등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사실 이러한 주장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언젠가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그 때까지 우리는 매우 일천한 이론전공의 역사 속에서 얻어진 성과와 결과를 검토, 반성한 후 이를 토대로 보다 건강한, 여러 씨를 뿌려 키워야 할 것이다.

사실 이론전공이 있기 전까지 음악이론이란 결코 학문으로서의 연구대상이 아니라 작곡이나 분석을 위한 지식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 비록 과목으로는 존재하지만 학문적 관심의 대상은 결코 아니었다. 한 예로 화성법의 경우 보통 작곡과 입시생을 위한 과목, 혹은 기타 전공생의 경우는 음악이론 과목으로만 여겨져 가르쳐졌지 결코 思辨의 관찰이나 조사를 통한 說이라든가 觀點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단지 法이었을 뿐 學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론전공교육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시각에서 화성법, 대위법 등 순수음악이론을 논하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음악과 사회, 음악과 언어, 음악과 修辭, 음악과 상징 등 다양한 주제로 관심을 넓히게 되었다. 현대와 같은 기술적, 전문적, 과도기적인 전환기에 음악학적 관점 없이 연주나 방송, 비평, 출판, 출판은 없다고 할 정도로 음악학(이론전공)의 기능은 크다. 더욱이 음악교육의 바탕과 이념도 결국은 이론전공에 근거하며 음악의 올바른 이해를 광범위하게 넓힐 수 있는 것도 이론전공의 과제이다.

2. 설치 현황

우리나라에서 전공으로서 음악이론은 1981년 서울대 음대 작곡과에서 3학년을 대상으로 전공으로서 택하게 한 것이 효시이다. 또한 이 해에 이론전공의 첫 신입생도 입학함으로써 명실공히 학부 내의 독립 전공으로 출범했다. 그리하여 작곡에 관계된 일반이론은 물론 음악관련 제 분야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결과 음악학의 접근방법에 대한 실험과 음악학의 사회 기능에 기초한 여러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이러한 논의는 결국 우리 사회에서의 여러 음악문화에 대한 관심으로도 이어져 학문의 사회참여도 행해졌다. 그리하여 1985년도 첫번째 학부 졸업 논문으로서 '심미적 경험 능력의 육성에 관한 연구', '음악인류학 연구', '불확정성 음악의 논리적 근거', '사회제도로서의 예술개념에 관한 연구' 등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전공으로서의 대상은 음악과 연관된 제 현상에다가 그 관점 역시 다양했다. 또한 이러한 작업은 1989년 3월, 음악대학 부설 비법정 연구소인 서양음악연구소의 개설로 이어져 보다 심도있는 연구활동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중요한 이론 연구기관으로서 1981년도

에 설립된 한양대학교 부설 음악연구소도 연구발표 및 학술지 『音樂論壇』의 발간을 통해 폭넓은 이론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1993년도에 설립된 경원대학교의 한국작곡가연구소는 한국현대작곡가들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역시 이론전공자의 중요한 활동장이 될 것이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의 이론전공은 현재 한 학년당 10명의 정원으로서 운영되고 있다.¹⁾ 석사과정은 1984년에 개설되었으며, 서울대 음대 사상 최초의 박사과정으로서 이론전공 박사과정이 1989년에 개설되어 1994년 현재 12명의 대학원생이 이 과정을 수료했거나 이수 중에 있다. 그 외의 대학 역시 관심을 모아 연세대, 이화여대, 계명대, 동아대, 성신여대, 한양대, 숙명여대, 장로회신학대, 효성여대 등이 이론전공을 개설했다. 그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대학에서 이론전공은 독립과로서 존재하지 못하고 작곡과에 부속되어 있다. 이 점이 우리나라 이론전공의 현 좌표이다.

이들 대학에 있어 이론전공 신입생 선발은 두가지로 대별된다. 하나는 아예 신입생을 작곡전공과는 별개의 입학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경우로 서울대, 성신여대, 서울시립대, 장로회신학대 등 소수의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다. 두번째 경우는 일단 작곡전공자로서 신입생을 선발한 후 일정 기간 뒤(대부분 3학년에 진급할 때) 학생의 희망과 교수 판단에 의해 이론전공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입시 실시시험은 94학년도 서울대 입시의 경우 기악실기(피아노를 비롯한 일반 악기), 청음, 화성법, 대위법 등이 요구되었다. 이는 일반적인 음악 소양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다. 이 외에도 필자의 소견으로는 음악과 관련된 주제(아니더라도 상관없지만)의 논술시험 역시 필요하다고 본다.

앞서 언급한 대로 대부분 학교의 이론전공이 작곡과에 부속되어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체계를 유

1) 일정 정원을 유지하면서 석·박사 과정까지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지닌 음악이론전공교육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이 유일하다. 따라서 이 글은 서울대학교 이론전공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지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또한 이론전공이란 명칭이 다른 나라와는 달리 음악에 관계된 제 분야를 망라한 것이어서 이론의 다양성과 독자성에 부합한 과정 수립 역시 힘들다. 게다가 각 대학의 전임 교수(그나마 소수의)의 전공분야에 따라 음악분석을 위주로 하는 순수이론 아니면 체계 음악학 혹은 음악사 중 하나로 제한되어 결국 학생들의 다양한 학문 욕구를 충족시키기 힘든 것이 일부 대학을 제외한 현실이다.²⁾ 이러한 점은 보다 내실있는 전공과목 운용과 더불어 다양한 전공의 교수 인력 충원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미국의 대학 중 일반적인 경우 이론전공은 학부과정에서는 순수음악이론만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나 대학원 과정에서는 순수음악이론전공과 더불어 음악학(Musicology) 전공이 개설된다. 음악학은 역사에 기초한 음악학(Historical Musicology)과 다양한 학문적 관점으로 음악을 다루는 체계 음악학(Systematic Musicology), 종족 음악학(Ethnomusicology)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음악학 전공이라하더라도 체계 음악학과 종족 음악학이 제공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일부 대학은 매우 전문적인 구성을 갖고 있다. 일례로 1950년대부터 체계 음악학 프로그램이 발달된 UCLA에서는 처음에는 음악과 안에 역사 음악학, 체계 음악학, 종족 음악학 학위과정이 함께 있었으나 1988년 체계 음악학과 종족 음악학이 합하여 하나의 독립된 ESM과(Ethnomusicology & Systematic Musicology Department)가 되고, 역사 음악학은 음악학과(Musicology Department)로, 作曲과 演奏專攻은 음악과(Music Department)로 개편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미국에서의 학부과정은 본격적인 이론전공을 위한 豫科 성격이라고 할 수 있

으며, 대학원 과정에서 本科로서의 본격적이며 전문적인 전공으로의 분화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은 서울대학이 계획하고 있는 이론교육 체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론전공의 활성화는 학부 이론교육에 대한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이에 기초한 대학원 과정에서의 세분화된 전문 프로그램 기획에 있다. 그러나 전공 내용에 따른 과의 분리가 장기적으로 요망된다.

3. 교과목 편성과 그 운영

현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의 학부 이론전공을 위한 전공교과목 이수 표준형태는 <표 1>과 같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 1, 2학년까지는 화성법, 대위법 등 순수음악이론을 학습하며 3, 4학년에서는 음악심리학, 음악사회학, 음악미학, 음악학개론, 음악기호학개론, 음악현상학 개론 등 음악학 계통의 과목들을 배우고 있다. 과목으로서의 이론전공은 1, 2학년의 경우 음악이론을 바탕으로 한 작곡 실습이 껴해진다. 이는 이론으로써 작품을 합성하는, 작곡과정을 통해 작곡이론 및 제 음악이론을 실질적으로 체득하는 시간이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토론 및 연구발표가 뒤따른다. 예를 들어 1학년 1학기의 경우 '모방, 동기발전, 형식'이라는 주제 아래 일반론적인 연구와 더불어 분석, 그리고 작곡 체험이 시도된다. 학생들은 문화에서의 모방과 반복의 의미, 이것에 의한 양식의 태동, 형식을 이론으로서 배우며 또 이를 작곡기법으로서 체득하게 된다. 따라서 이 시간은 클래스와 소단위 그룹으로 진행된다. 3, 4학년의 이론전공은 담당교수의 지도

2) 역설인지는 모르겠지만 비서구음악문화권으로서 종족음악학에 대한 관심은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서구인들의 방법론을 통해 그들의 음악문화를 하나의 종족음악으로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 전통음악에 대한 우리 나름의 시각도 새롭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음악학의 새 분야 중 종족 음악학이 가장 취약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표 1〉 학사과정 전공교과목 이수 표준형태

(1993학년도)

학년 \ 학기	I	II
1	652.260* 이론	652.260* 이론
	652.261* 시창청음(이)1	652.262* 시창청음(이)2
	652.265* 화성법 및 건반화성(이)1	652.266* 화성법 및 건반화성(이)2
	652.269* 대위법(이)1	652.270* 대위법(이)2
2	652.260* 이론	652.260* 이론
	652.267* 화성법 및 건반화성(이)3	652.268* 화성법 및 건반화성(이)4
	652.271* 대위법(이)3	652.272* 대위법(이)4
	652.263* 시창청음(이)3	652.264* 시창청음(이)4
	652.254* 음악사1	652.255* 음악사2
	652.274* 음악이론세미나	652.274* 음악이론세미나
3	652.260 } 이론	652.260 } 이론
	652.280 } *지휘실기	652.280 } *지휘실기
	654.240 } 이론(국악)	654.240 } 이론(국악)
	652.368* 작품분석(음악이론:이)1	652.369* 작품분석(음악이론:이)2
	652.303 관현악법(이)1	652.304 관현악법(이)2
	652.358* 음악사3	652.359* 음악사4
	652.274* 음악이론세미나	652.274* 음악이론세미나
	650.318 음악미학	650.323 음악심리학
	650.319 음악학개론	650.329 음악사회학
	4	652.260 } 이론
652.280 } *지휘실기		652.280 } *지휘실기
654.240 } 이론(국악)		654.240 } 이론(국악)
652.452* 음악분석 및 현대음악 이론1		652.453* 음악분석 및 현대음악이론2
650.327 음악현상학개론		650.322 음악기호학개론
650.414 개화기음악사		

*표는 전공필수

아래 소단위 혹은 개인별로 저마다의 주제를 연구한다. 4학년 때에는 주제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특기할 점은 1학년 때부터 컴퓨터 사용이 필수라는 것이다. MIDI(Musical Instrument Digital Interface)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악보출력 등이 기본 요구사항이다. 이는 미래 음악분야에 대한 컴퓨터의 용도에 대한 대비책이랄 수 있다. 점차 미디

는 음악이론 교육 및 연구, 실험에서 구체적 수단이 되고 있다. 또한 미디를 통해 새로이 창출되는 분야가 점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응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음악소프트웨어 강화와 전자음악입문, 컴퓨터 음악입문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 이들 과목은 타대학 학생들에게도 관심이 높은 과목이기도 하다.

〈표 2〉 학부 이론전공자의 졸업후 진로

분야 \ 학번	'81	'82	'83	'84	'85	'86	'87	'88	계(분야별활동인원)
석사 과정 진학 (이론전공)	4	5	3	5	4	7	7	5	40
석사 과정 진학 (기타 전공)		1		1	1		1		4
석사 과정 진학 (음악교육전공)	3		1	1	2		1		8
유 학	1	1	2	2+(1)	1	1			9
시간 출강	(1)	(2)	(1)						4
중등학교교직	1		1				1		3
기타직 종사	4+(1)	2	2+(1)	(1)	1	1	(1)	1	15
재 외			3	3				1	7
무 직		2		1	1				4
기 타		2	1			2			5
계(기별졸업생수)	12	13	13	13	10	12	9	7	89 \ 99

한양대의 경우 3학년 진학시 이론시험을 통해 학생을 선발한 후 작곡전공 학생들과 거의 동일한 과정을 이수하지만 전공필수로서 이론특강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론특강의 내용은 쉐커 이론을 통한 분석법, 집합이론 등으로 이루어진다.

4. 진로와 여건

위의 표는 서울대의 학부 이론전공자들의 입학년도에 따른 졸업 후 진로 상황이다. 81학번에서 88학번까지이므로 1992년도 졸업생까지를 망라한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이론전공에 의한 석사과정 진학이 약 45%이며 음악교육 및 기타 전공으로의 대학원 진학이 13.4%, 유학이 10%로 약 68.4%의 졸업생이 대학원 진학을 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기타직으로서 음악잡지 기자, 음악학원 경영 및 강사를 비롯, 악보출판 및 음악제작 등의 CAM(Computer Aided Music) 관련 사업이다. 또한 음악평론계 및 방송계에도 전공자들의 참여도가 점

차 높아지고 있음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간 이론전공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직업으로서의 진로 문제이다. 각 대학에서 이론전공이 활성화될 때 이론전공자의 진로는 일단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이론전공 교육에 대한 기대는 매우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음악사, 음악미학 등의 과목을 맡는 경우도 있지만 그 외의 순수음악이론에까지 영역이 넓혀져야 할 것이다. 이에선 이론전공의 전문화가 시급하며 이론교육에 대한 당사자는 물론 음악대학의 인식전환 역시 필요하다. 또한 이론전공자 스스로가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때 개인적 진로는 물론 학문의 진로 역시 밝을 것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론전공 교육은 보다 활발해 질 것인 바, 이론전공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의를 해 본다. 물론 이는 당장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간의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① 이론교육에의 참여

우선 이론전공이란 말에 알맞게 음대 내에서의 이론교육에 대한 전공자의 참여가 활발해야 한다.

② 연구소 기능의 활성화

공연장이 궁극적인 출력의 장인 연주 및 작곡전 공과는 달리 이론전공은 우선 學會 活動이 중요한 근거이다. 국내 및 국제 음악학회 및 음악학 관계 기관과의 연계, 회의 및 연구발표회, 연구기금의 확보 등을 이러한 조직을 통해 실현시켜 스스로의 연구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일은 현재 몇 대학의 연구소를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더욱 구체적인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연구원으로서 대학원생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사회 참여

다각도로 음악을 다루는 체계 음악학의 경우 더욱 사회와 밀접한 연구활동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을 통해 음악교육, 음악행정, 음악비평, 음악방송, 대중문화현상 등 문화 프로그램에 직·간접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또한 민요 및 악보 수집, 분류, 출판, 출판, 전통악기의 음향학적 분석, 데이터 베이스 구축 등의 우리 음악문화에 대한 정리작업도 한 영역이 될 것이다. 이 항은 어쩌면 연구소의 구체적 사업으로서 이해해도 될 것이다.

④ 다른 학문과의 연계를 통한 전공의 다양화, 전문화

관심의 대상이 다양한 이론전공의 특성상 각 대상의 고유 학문과의 연관은 중요하다. 이러한 관련 속에서 다양한 전공분야가 파생될 수 있다. 이러한 학문의 분화는 많은 이론전공자들에게 활력이 될 것이다. 특히 종합대학에서의 음악이론전공은 그야

말로 종합적 학문환경에 어울리는 음악전공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체계 음악학의 경우, 연계 학과의 협동과정은 매우 중요하다(예를 들어 악기음향학의 경우 음향학과의 연계). 이러한 협동과정을 통해 연계 학과의 경우, 응용분야로서의 이론전공과 공동 연구도 가능할 것이다.

5. 맺는 말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처럼 음악문화란 더 이상 감성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는 냉정히 조사되는 관찰대상이며, 또 실험되는 대상이기도 하다. 그런가 하면 과거의 궤적에 대한 새로운 추리를 통해 미래를 추론하는 대상이며, 도대체 감동이란 무엇인가로 해부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그 결과 얻어진 공식에 따라 재결합을 실험당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론전공은 음악과 관계된 모든 것을 학문적 호기심과 예술적 감동으로서 다룬다. 우리나라에서 이론전공은 이제 어려운 자리매김을 했다. 여러 대학의 많은 학생들이 이론전공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실지 해외에서는 연주전공에서 전과한 경우도 흔하다. 이는 우리 사회가 음악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날로 증대되는 전문사회로 가고 있음을 뜻한다. 또한 최근 여러 전공 분야의 전문 교수 인력들이 축적되고 있는 현실은 앞으로 독립된 과로서의 가능성을 충분히 예시하고 있다. ▣